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현행원이다

9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조계종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도법 스님이 강사로 나섰다.

지난 5년 간 지리산을 출발해 전국을 도보로 순례하며 생명평화의 마음을 탁발한 도법 스님. 현재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귀농운동 등 생명살림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은 이날 청중들과 세 시간 가량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사유방식과 인드라마의 세계관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공연장을 가득메운 300여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과 그 삶을 위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주제: 인드라마 무늬와 보현행원
제목: 세계를 삶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강사: 도법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실상사 회장
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장
일시: 9월 9일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도법 스님

다른 하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다. 여실지견은 사랑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여실지견, 사랑의 법칙대로 실천하는 것, 자비의 길이다.

풀어보면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그 내용(사랑의 법칙)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삶이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다른 데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여기 직면한 존재의 실상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좀 더 간추려 정리하면, 하나는 주제적인 삶만이 그 삶이 참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실과 진실, 즉 직면한 실상에 근거하여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언제나 그대가 직접(自歸依) 법의 길(法歸依)을 가면 그 길을 가는 만큼 해탈 열반이 바로 그대의 삶이 된다는 뜻이다.

매우 단순화시켰지만, 불교의 기본 사유방식에 대해 짚어보았다. 따라서 이제는 그 사유 방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싶다.

(이어 문답으로 진행)

왜 주제가 인드라마 무늬와 보현행원인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게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삶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현대 문명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왜 인드라마인가?

색안경을 쓰고 있는 한, 눈먼 상태로 있는 한, 꿈속에 있는 한 천하를 다 돌아보고 온갖 고행을 다 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볼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세계이다. 반면 눈을 뜨기만 하면, 색안경을 벗기만 하면, 꿈을 깨기만 하면 지금 바로 보이고 실현되는 세계와 삶이 화엄 즉 인드라마 세계이다.

화엄에서 말하는 존재의 실상은 그 어디에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무엇도 불평등하지 않다. 언제나 서로 따로이면서 함께이고, 모두가 평등하다. 온우주가 연기법 즉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사랑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 그물이고, 낱알 존재들도 사랑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그물코들이다. 한 대지의 연못과 연꽃처럼, 한 몸의 두 손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한다.

화엄 또는 인드라마의 세계와 삶은 중생이니 부처이니, 깨달음이니 미혹이니, 기독교니 불교니 하고 분리, 차별, 갈등, 대립하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관념 이전의 세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삶이다. 사랑의 법칙에 의한 함께와 따로, 긴장과 협력, 균형과 조화의 삶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세계가 인드라마 세계요, 그 실상을 설명해주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왜 인드라마 세계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소를 타고 파리를 부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분리 고립되어 왜소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자아의 울타리에 갇힌 왜곡된 삶이 아니라 내가 곧 우주요 내가 그대로 부처인 인드라마 존재로 탕탕무매하게 살고자 함이다.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삶과 존재의 존엄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인 것이다. 인드라마 세계관은 누구나 찾아

색안경을 벗기만 하면 지금이 화엄세계 자업자득 여실지견이 붓다가 가르친 불교 <自業自得> <如實知見>

-인드라마는 제석천이라는 하늘나라의 궁전에 드리워진 구슬 그물의 이름으로,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일찍이 화엄의 대가들은 화엄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중중무진연기의 세계(겹겹으로 무궁무진하게 관계 맺어 이루어진 세계)라고 했고, 그 세계관을 비유로 인드라마 세계 또는 존재라고 했다.

직면한 존재의 실상 즉 인드라마 존재를 사실대로 보면 화엄의 세계, 화엄의 삶, 중생의 세계, 중생의 삶 그 어떤 것도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다만 모든 가능성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삶의 주제인 당사자가 어떻게 보고 사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세계요, 삶이다.

가야 할 현실이요 삶이며, 실현해야 할 현실이요 삶이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행이요 실현하고 누려야 할 세계와 삶이기 때문에 인드라마 사상과 정신을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직면한 존재의 실상, 즉 삶의 주제인 사람 또는 자기를 아는 일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화두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존재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인간의 원초적 물음에 대해 인드라마 사유 방식으로는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는가?

-<불본행집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

붓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사람, 탐진치가 소멸되어 열반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해탈했는가? 연기법(緣起法) 즉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랑의 법칙인 우주의 보편적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궁극의 열반에 도달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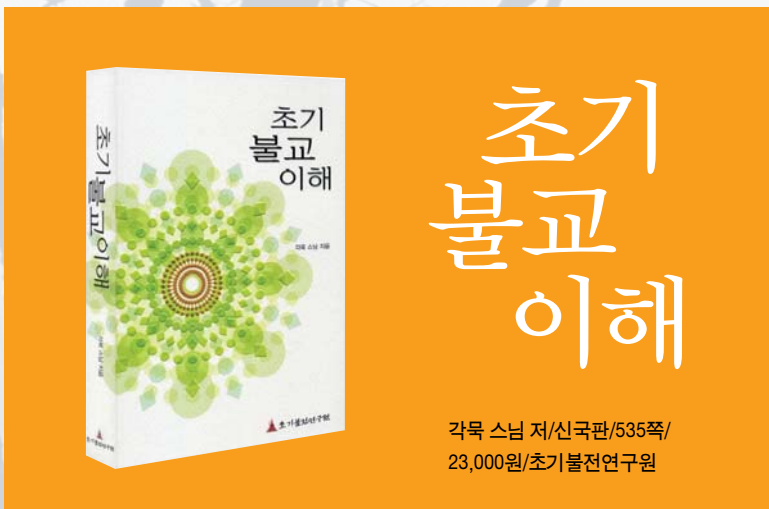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은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붓다의 가르침은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 단일한 체계의 이론서가 아니고 병에 따른 처방전이기에 때문에 병의 수만큼이나 처방도 많다. 하지만 팔만사천 법문을

종합해 그 사유방식의 본질적 핵심을 간단하게 함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다. 풀어보면 자신이 행위 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이 받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제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 부모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좋으나 못으나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길이 잘 닦여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제적으로 가야만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되는 것이다.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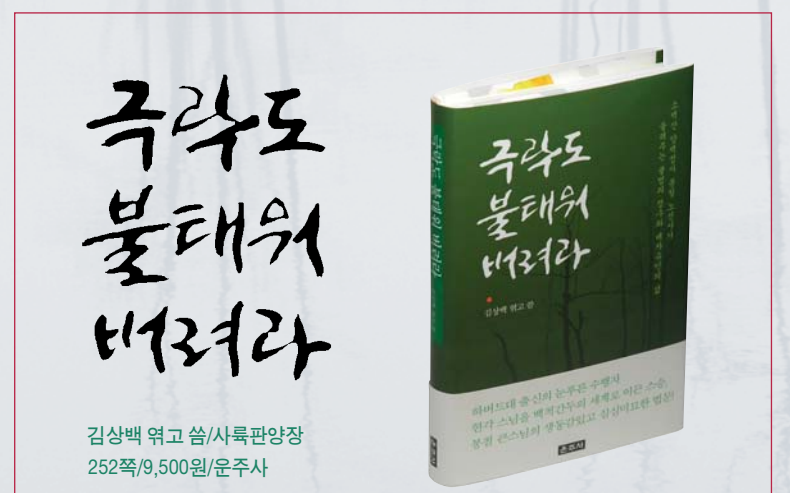


이 책은,
①한역경전이 아닌, 빼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②빼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용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앗따 니까야'를 중심에 두었다.
④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⑤철저하게 '정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버드대 출신의 눈부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불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불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선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맛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불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신행(信行),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적 개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